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하브루타 학습법을 중심으로-

김장현¹, 이유림^{2*}

¹디자인 팩토리, ²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Undergraduate Students' Perspectives towards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 in Historical Drama -Focused on Havruta Learning-

Jang-Hyeon Kim¹, Yu-Rim Lee^{2*}

¹Design Factory, ²Division of Beauty Design, Shin-Gyeong University

요약 사극 드라마는 더욱 극적인 전개를 원하는 대중들의 취향에 따라 퓨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증 의상 또한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의 사례 탐색 및 학습자의 인식을 조명해보고, 향후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한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사극 드라마의 역사적 사실을 저해하는 고증의상의 과도한 현대적 변용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한국 고유의 정체성 상실, 드라마의 몰입도 저하, 미디어가 갖는 교육적 영향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전통 문화의 인식 제고를 통한 관심 증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대한 절충, 대중들의 시각적 유희 증대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셋째,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효과적인 연출 방향에 대한 함의점은 사극 드라마 관계자들의 인식개선과 고증의상에 대한 의상디자이너의 철저한 사전 조사, 전통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이고 명확한 교육적 접근, 정부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Abstract Historical dramas are changing in response to the public who wants more dramatic development, and historical costumes are also expressed in a modern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s in historical dramas and how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s in historical dramas is fostered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with suggesting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essential problem with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s was the excessive modern transformation that undermines historical facts in historical dramas.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s in historical dramas included the loss of the unique Korean identity, decreased immersion in drama, and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media. Positive perceptions focused on the increased interest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traditional culture, compromises on changes in the times, and increased visual play of the public. Third, the implications of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s in historical dramas require the awareness improvement of participants in historical drama and a thorough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the costume designer on the historical costume, an in-depth study of traditional costumes, a systematic educational approach, viewers' attention, and government effort.

Keywords : Historical Drama, Historical Costume, Havruta Learning, Undergraduate Students' Perspectives, Modern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Yu-Rim Lee(Shin-Gyeong Univ.)

email: rim@sgu.ac.kr

Received February 5, 2021

Revised March 3,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대중매체에서 선보이는 고증 의상은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극중 인물의 신분이나 계급, 또는 심리적 상황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표상화된 기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극 드라마에서 선보이는 고증 의상은 다른 대중매체보다 전파력이 강한 매체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흐름을 갖는 사극 드라마는 더욱 극적인 전개를 원하는 대중들의 취향에 따라 퓨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배우들이 착용하는 고증 의상은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 Pong and Lee[1]의 연구에 의하면 사극 드라마의 의상은 시청자들에게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각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된 고증 의상이 시청자에게 고증 의상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극 드라마 속 고증 의상의 현대화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학 교육에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을 함양하고 있는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고민해볼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Kim, et al.[2]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지하고, 향후 직면하게 될 불확실한 미래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술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사극 드라마에서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 사례의 탐색 및 학습자의 인식을 조망해보고, 향후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다변화된 대중들의 취향 및 올바른 역사관이 반영된 고증 의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한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고증의상의 개념 및 하브루타 학습법에 관련된 선행 연구, 인터넷, 국내의 단행본 및 전문서적을 토대로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 사례를 국내의 사극 드라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의 사극 드라마를 선정한

배경은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현실의 재구성이라는 특성을 함양하고 있으며[3], 여타의 대중매체보다 전파력이 강한 매체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1], 고증 의상의 현대화와 관련된 사례를 파악해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극 드라마의 개념 및 사극 드라마에서 의상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4]을 의미하며, 사극 드라마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극화한 TV프로그램의 한 장르이다[3].

사극 드라마에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Kim[5]은 사극 드라마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실적인 소재와 허구를 결합하여 역사성과 드라마적인 유희성을 모두 함양하고 있다고 하였다. Kim[6]의 연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사극은 현재의 현대성과 과거 역사의 조합이라는 이중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역사의 현재적 재현에는 필연적 배경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Jin[7]은 사극 드라마는 상업적 콘텐츠로 역사적 사실에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의 개입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유희를 선사해야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극의 표현방식에 있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극 드라마는 역사적인 사실성과 현시대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해야만 하는 상업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가나 감독의 허구적 상상력의 접목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극 드라마가 역사에 대한 왜곡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TV 사극 드라마에서 시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함양하고 있는 사극의상은 극의 영상미를 높여줌과 동시에 시대적 배경 및 등장인물의 사실적·심리적 상황, 계급이나 신분 등의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표현적 상징체의 특성을 갖는다[8,9]. Lee[10]의 연구에 의하면 사극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대중들은 사극에 허구가 더해졌음을 인지

하면서도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한 시대의 대표성을 띄는 사극 의상은 대중들에게 의상과 시대가 대중들에게 각인되면 그 연계성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Pong and Lee[1]은 사극 의상은 시청자들에게 당대의 사실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전통문화까지도 전달하는 교육적인 특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Shin and Na[9]은 고증복식의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 하에 사극의상의 현대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극에서 고증의상이 대중들에게 당대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사적 자료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극 드라마의 고증의상의 현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n, et al.[8]의 연구에서는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 의상의 인물별 고증 정도와 시기별 변화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Pong and Lee[1]는 사극드라마 대왕의 길에 표현된 의상과 고증과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그 차이점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Shin and Na[9]은 정통사극 '정도전'과 퓨전사극 '육룡이 나르샤'에 나타난 사극드라마 의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극 의상과 고증 의상의 비교 분석을 통한 디자인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사극 드라마에 대한 연령층의 확대 및 사극 의상의 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시, 대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하브루타 학습법은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haver에서 유래되었으며,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짝을 지어 서로 대화, 토론, 논쟁하는 학습법을 의미한다[11,14].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Mathieson[12]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학습 사례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Kent[11]가 하브루타 학습법의 실제적 적용을 통하여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단계와 특징을 발표한 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하브루타 학습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고찰해보면, Kent[11]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짝을 구성하여 서로 대화 및 토론, 논쟁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이 성

립된다고 하였다. Kim[13]은 이를 협력적 텍스트 해석 활동이라 명명하며, 개인 내적 또는 대인 관계적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Kim[14]은 정답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하였으며, Kim[15]은 하브루타의 학습법의 수행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제 3자의 개입 없이 수평적 관계에서 학습자들의 집중력 및 문제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브루타 학습법은 교수자의 참여 없이 2인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개인 내적 또는 대인 관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브루타 학습법의 수업 모형은 질문중심, 문제 만들기, 비교 중심, 논쟁 중심 등 다양한 학습법이 존재한다[16]. 본 연구에서 적용한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학습 과정은 교수자가 제시한 논제에 대하여 2인 일조로 구성된 팀끼리 한 가지 논제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토론하고, 다시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서로 변경하여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17].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은 서로의 의견에 대한 논제의 합일점을 도출하게 되고, 논제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

하브루타 교수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띄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실제 교과목에 접목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나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3,15]. 두 번째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여 활성화 방안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4,16,17].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학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 및 특정 교과목의 적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패션의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거의 전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볼 시, 하브루타 교수법을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패션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역사성을 함양하고 있는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 사례

본 장에서는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 사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사극에서 나타난 고증의상의 현대화 사례는 크게 의복과 갑주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1 의복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 중 의복의 현대화 사례로 2013년 방영된 사극드라마 대왕의 꿈을 들 수 있다. Fig. 1[18]의 의상은 극 중 인물의 혼례식을 치루는 장면으로 그 당시의 고증 의상이 아닌 퓨전한복의상을 착용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본 장면의 의상은 당대의 의상과 연관성이 없는 퓨전 한복 의상으로, 영상에서 극중 다른 인물들의 고증 의상과 불협화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청자들은 극중 몰입도의 저하, 연출진의 준비성 및 고증 복식에 대한 아이들의 혼란 등의 부정적인 반응[18]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2017년 방영된 사극 드라마 화랑에서도 Fig. 2[19]처럼 화랑들이 착용한 의상 또한 여밈이나 장식, 색상 등 신라 시대의 복식 고증의 형태를 벗어난 현대적인 의상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같이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보다 퓨전 의상의 화려함에 비중이 높아지는 배경으로 모 방송 관계자는 수십 회를 방송해야 하는 드라마의 특성과 방송사간의 사극 경쟁 등을 예로 들어 시청자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20]. 하지만, 사극이라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단순히 시청자들의 관심과 다른 사극과의 차별화를 위해 당대 실재하였고 우리나라의 복식 서적이나 박물관에서도 복원되어 있는 의상을 어떠한 공지 없이 현대화하여 퓨전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은 과연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판단된다.

3.2 갑주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 중 갑주의 현대화 사례로 2012년 방영되었던 사극드라마 광개토태왕의 갑주를 들 수 있다. 갑주란 “전투용구로 이용되는 갑옷과 투구”[21]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극 드라마의 전쟁 장면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Fig. 1. The costume of “Dream of the Emperor”



Fig. 2. The costume of “Hwarang”



Fig. 3. The armor of “The great Gwanggaeto”



Fig. 4. The mantle of “The great Gwanggaeto”



Fig. 5. The armor of “Six Flying Dragons”

고구려 시대의 갑주는 대부분 소찰을 가죽 끈으로 엮은 찰갑이며, 목과 사지를 보호하는 부속구의 착용이 많은 것을 특징[22]으로 한다. 하지만, 사극 드라마 광개토태왕의 갑주는 Fig. 3[23]처럼 용무늬가 새겨진 황금판금으로 구성된 갑주를 착용하였으며, 일체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구려 시대와의 갑주와는 그 형태적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24]와 같이 용 문양이 수놓아진 망토의 착용은 왕의 위엄과 상징성은 자아낼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사적 사실성을 벗어난 형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2015년 방영되었던 사극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Fig. 5[25]의 이성계와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가 고려 시대의 갑주와는 다소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드라마의 관계자는 “이성계의 갑옷은 어떤 특정 시대의 갑옷 디자인을 참고한 것이 아니며, 무장의 특색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26]고 하였다. 즉, 고증 갑주를 차용하기보다는 인물의 신분이나 특정 상황에 중점을 두어 사극의상을 전개함으로써 드라마의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사례는 사극 드라마의 고증 복식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극 드라마를 연출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보다는 인물의 특성이나 극의 전개나 상황에 따라 고증의상의 현대적 변화를 연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사극 의상의 현대적 해석은 극의 새로움을 부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극에 대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역사적 사실성을 외면하고 시청자들에게 당대 복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실제화를 구현하거나 현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출의 여부는 제작진의 연출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대 사회라는 특성과 사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극 드라마의 제작 관계자 및 복식 관련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4.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77명의 대학생들에게 하브루타 교수법을 통한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무제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다. 무제한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창의적이거나 기대하지 못한 답변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시 효과적이며, 질문

의 응답에 대한 자유를 응답자에게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27]. 또한, 현재 COVID 상황에 따라 대학의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고려해볼 시,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학생들이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배경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사극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은 전통 문화의 인식 제고를 통한 관심 증대이다. “*· · · 한복 유행의 큰 전환점* · · ·”, “*· · · 드라마 의상을 한복 유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 · ·”, “*· · · 역사로 넘어버린 전통 복식의 또 다른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 · ·”, “*· · ·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계속 될* · · ·”, “*· · · 한복이 옛 옷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로* · · ·” 라는 응답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대중 매체가 전통의상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통 한복 시장의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Lee[28]는 2006년 방영되었던 사극 ‘황진이’에서 선보인 고증의상의 현대적 스타일은 침체되었던 한복 시장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입고 싶은 한복이라는 인식개선 및 한복 산업의 대중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의상이 대중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을 유도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사극 드라마 속 고증 의상의 현대화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전통의 한복을 관례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직접 착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대한 절충이다. “*· ·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대중들의 취향과 변화를 고려하여* · · ·”, “*· · · 공감을 이끌어내고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선택* · · ·”, “*· · · 옷을 그대로 썼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색한 느낌을 받았을* · · ·”, “*· · ·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다는 장점* · · ·” 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가 대중들의 이해도와 공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중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Im[29]에 의하면 미디어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매개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사극드라마 속의 고증 의

상은 당대의 유행의 재매개화를 통한 하이퍼 매개를 통하여 여러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고증의 비매개적 표현은 사극에 대한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모든 부분들이 급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행의 변화에 대한 절충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는 부분을 버리고자 함이 아닌,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자,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세 번째 배경은 대중들의 시각적 유희 증대이다. “... 작품의 화제성을 높이는...”, “... 이야기 풀리는 효과를 가져옴...”, “... 새로운 느낌을 내는 것으로 신선한 충격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 철저한 고증기반의 전통복식보다 더 큰 재미를 안겨줄...”, “... 시청자는 창작물을 통해 만족감을 받는 대상...”이라는 응답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전통의상의 현대화가 시청자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움이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의 경험을 통하여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은 이를 통하여 유희적 감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극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상업성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고증의상의 현대화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작품의 화제성까지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Lee and Kang[30]에 의하면 2000년대 사극의 감성화는 대중문화의 정서적 측면이 반영됨에 의한 것이며, 사극의 의상 또한 대중과 소통하려는 수용적 태도 속에 화려함과 볼거리를 더한 외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사극 의상의 변화는 여성이나 젊은 층으로까지 사극에 대한 소비주체를 넓히는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30]. 이는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가 시청자들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극의 재미를 상승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뜻한다. 즉, 고증의상의 현대적 변화는 다변화된 대중의 기호에 상응하기 위한 표현 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사극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은 한국 고유의 정체성 상실이다. “... 우리가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민족 고유 정서는 무엇인지 대하여 혼란이...”, “... 역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변형된 의상을 그 당시에 입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

른 이에게까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할 가능성이...”; “... 잘못된 역사가 나비효과처럼 큰 문제를 일으킬...”; “... 역사의 근본을 훼손하는...”이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고증의상의 변화가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즉, 역사성을 함양하고 있는 복식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사회 문화가 반영된 또 다른 역사의 실체라는 것이다. 조선복식미술의 저자 Guem[31]은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을 각 민족이 함양하고 있는 가치관과 당대의 삶을 투영해볼 수 있는 거울이라 명명하였다. Carr[32]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극에서의 고증의상의 현대화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과 변질을 뜻한다. 후대에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가 반영된 복식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극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은 드라마의 몰입도 저하이다. “... 잘못된 고증을 아는 사람에게 몰입도를 깨지게 하는...”, “... 시청자의 불편함이 따를 수...”, “인물에 대한 의구심이... 이야기 전개와 이해에 방해가 된다.”, “...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한다”, “... 과장된 의상의 변형으로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던 작이...”, “...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적 부분에서 방해하게...”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전통의상의 현대화가 드라마의 몰입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에서 의상의 시각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고증 의상의 현대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극 드라마의 역사적 개연성을 낮추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전개를 초래하게 된다. 드라마는 TV 화면 내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마치 현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한 시간 지각을 감응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33]. 특히, 사극의 드라마는 역사적인 내용을 토대로 전개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공식적인 부분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고증의상의 현대적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역사 속 시공간의 괴리감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극에서 고증의상은 시청자들에게 시대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계급이나 신분의 정보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상징화된 시각적 기호[8,9]로 드라마의 사실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라마 속 스토리의 몰입도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 이는 사극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보다는 사극의 특성에 적합한

고증의 분석을 통한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극에서 고증 의상의 실제적 접근에 대한 인식의 세 번째 배경은 미디어가 갖는 교육적 영향력이다.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살펴볼 수 있어...”, “...전통적인 모습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는...”, “...실외에서 이동하며 영상 매체를 수용할 수도 있는 세상...”, “...역사극을 보고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정립...”, “...사대물들을 접하는 시청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대중들과 우리나라의 옛 시대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높은 접근성을 가진 미디어는 잘못되지 않는 역사적 정보를 전달해야만...”이라는 응답처럼 학습자들은 미디어가 갖는 정보의 전달력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Choi[34]와 Han[35]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접근의 용이성을 내포하는 TV 드라마를 역사지식의 습득을 위한 매체로 선호하였으며, 사극 드라마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으나,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창작물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역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사극 드라마의 교육적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류에서 사극에 나타난 고증의상의 현대화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교육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사극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또한, 한류 열풍을 통하여 한국 드라마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한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극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사례와 하브루타 교수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증복식에 대한 드라마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고증 의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연출자 및 의상디자이너가 얼마만큼 역사성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뜻한다고 할 수 있

다. 사극 드라마는 TV라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며, 사극 의상은 시각적으로 영상미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표상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이상의 가치를 함양하고 있다. 하지만, 사극 드라마에서 제작 관계자들이 제작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철저한 고증의 어려움을 언급[36]하거나, 드라마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또는 퓨전 사극 드라마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37]은 고증의상의 현대화를 합리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적어도 역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상을 선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사극의상의 현대화의 사례와 학습자들의 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증의상의 지나친 현대화는 사극드라마의 흥미를 유발하기 보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당대의 고증의상이 우리나라의 미의식과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는 기호라는 대중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함에 있어서 제작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증의상의 기본적인 틀을 선 안에서 현대적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극에 완성도나 사극 드라마의 의상에 대한 예술적 가치도 향상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둘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전통 복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이고 명확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며, 사료에 대한 유무가 고증의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이 아닌 명나라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38]이라는 문제가 중국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통복식에 관련된 다수의 학자들은 벽화나 다수의 학술자료에 근거하여 한복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임을 입증하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콘텐츠의 부실한 고증에서 기인된다고 지적[39]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의 명확한 고증을 위해서는 전통복식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극 드라마 정도전의 제작진에 의하면 “고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역사적 자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36]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통 복식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복식에 대한 학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재까지 사극드라마에서 나타난 고증의상의 현대화 논

란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복식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Park[38]에 의하면 대중들은 특정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사극 드라마를 통하여 한복을 접하며, 한복에 대한 역사적 변천사를 잘 알 수 없기에 체계적이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복식에 관한 교육은 주로 고등학교의 기술교과나 가정교과, 대학의 패션이나 의류학의 교육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40,41].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극 드라마와 관련된 대학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들 스스로가 각 분야와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교육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향후 사극드라마의 제작 관계자 및 의상디자이너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통 문화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창조적 역량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각과 역량을 갖출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정부와 시청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내용들은 단순히 제작사와 학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으며, 정부와 시청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고에서 제안하는 정부의 노력은 전통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급급한 정책이 아닌,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장르적 다양성이나 예술가의 창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노력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극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전통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수립 및 학계의 구성원들의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극드라마의 시청자 입장에서 대중들이 방송사 또는 관련 제작사 및 기관에 창의성과 전통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준다면 드라마 관계자들은 그 적절한 기준점을 인지하고 차후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드라마는 상업성을 동반하고 있기에 드라마의 제작을 기획함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견해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사극 드라마 정도전의 작가 Jeong[36] 또한 시청자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드라마가 시청자들에

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함이라는 본질적인 방향성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언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창작자의 예술적 가치까지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고증의상의 현대화 사례의 탐색과 대학생들이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망해보고,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는 크게 의복과 갑주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저해하는 과도한 현대적 변용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한국 고유의 정체성 상실, 드라마의 몰입도 저하, 미디어가 갖는 교육적 영향력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역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릇된 역사관이 진실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대중매체에 나타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전통 문화의 인식 제고를 통한 관심 증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대한 절충, 대중들의 시각적 유희 증대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전통 의상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통한 관심의 증대로 전통의상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 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함의점은 연출자 및 의상디자이너가 얼마만큼 역사성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고증 의상의 현대적인 해석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지만, 대중들의 관심 유도 and 흥미 유발을 위해 한 시대의 역사성을 함양하고 있는 복식의 근간을 넘어서는 변화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또한, 역사학과와 복식학과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한 감수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극 드라마와 관련된 교육자 및 연구자들이 전통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사극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학문적 가치 제고와 대중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장르적 다양성이나 예술가의 창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상디자이너 및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에게 전통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 모두 드라마에 용해시킬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함의점들은 고증 의상의 예술적 가치 향상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증 의상의 현대화를 통한 연출시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까지 사극 드라마에서 고증의상의 현대화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서로 상이한 가치의 이면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수용하여 적절하게 융화시키고자 하는 열린 사고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한류의 흐름 속에 한국의 사극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사극 드라마에서 올바른 고증의상의 현대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Pong, S. Lee, "A study on the historical inquiry of TV historical drama costumes: Mainly focused on 'The way of the great king'",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2, No.2, pp.113-136, 2000.
- [2] J. Kim, H. Huh, W. Kim, T. Kim, Korean modern history, pp.1-351, Bobmunsa, 2004.
- [3] B. Le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historical drama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218, 1997.
- [4] History [Internet]. Naver dictionary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e400b4deef9422cae5f259a0aaedfa5> (Accessed January. 22, 2021)
- [5] S. Kim, "A case study of makeup and hair style attendant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movi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99, 2011.
- [6] S.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ypermediacy expressed in TV historical drama 'Jang Hee-bin'",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1-135, 2019.
- [7] S. Jin, "A study on the movies reinterpreted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Between reinterpretation and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event", *Journal of East-West Communication Council*, Vol.15, pp.91-113, 2012.
- [8] E. Han, C. Han, S. Ryu, "A study of the costume in the historical TV drama that the empress Myungsung appeared: Focus on costume of main charac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5, No.8, pp.85-98, 2005.
- [9] D. Shin, H. Na,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stume of historical TV dramas: Focused on authentic historical drama 'Jeong Do-jeon' and fusion historical drama 'Six Flying Dragon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Vol.25, No.1, pp.53-64, 2000.
- [10] M. Lee,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Goguryeo period costumes for TV drama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1-112, 2019.
- [11] O. Kent,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Vol.76, pp.215-245, 2010. DOI: <https://doi.org/10.1080/15244113.2010.501499>
- [12] M. Mathieson, "Tips for teachers: Lesson plans and ideas from around the world", *ERIC Cooperative Learning*, Vol.10, No.4, pp.49-54, 1990.
- [13] M. Kim, "The effect of question enhancement Havruta steam programs on the science process skills of elementary students'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pp.1-85, 2016.
- [14] H. Kim, "The study of Israel's creative education system",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pp.1-159, 2017.
- [15] Y. Kim,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attitude in the class applied the Havruta technique: Focused on Korean language and math classes in sixth grade",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Korea, pp.1-52, 2018.
- [16] M. Eom, J. Kim, "A case study on the applied Havruta method in the Chinese class as the university liberal arts subjects",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Vol.36, No.1, pp.417-441, 2018. DOI: <https://doi.org/10.18213/jkcl.2018.36.1.014>
- [17] H. Hwang, "Case study on Havruta and public debate",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5,

- pp.255-277, 2020.
DOI: <https://doi.org/10.33645/cnc.2020.05.42.5.255>
- [18] The costume of "Dream of the Emperor" [Internet]. Heraldcorp [cited 2013. April 1], Available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100438&md=20130404004936_BL (Accessed January. 22, 2021)
- [19] The costume of "Hwarang" [Internet]. Mnews [cited 2017 February 6], Available From: <http://mnews.imaail.com/Entertainments/2017020610475179091> (Accessed January. 22, 2021)
- [20] These days, historical costumes are out of history... Character-matched fusion is the trend rather than historical research [Internet]. Dongailbo [cited 2012 August 21], Available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821/48759326/1> (Accessed January. 22, 2021)
- [21] Armor [Internet]. Doopedia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method=view&MAS_IDX=10101300072817 (Accessed January. 22, 2021)
- [22] H. Chang, "A study on armor in Korean historical drama", *Journal of Korean Theatre Education*, Vol.27, No.-, pp.101-132, 2015.
- [23] The amor of "The great Gwanggaeto" [Internet]. KBS [cited 2012 April 29], Available From: 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_ame=vod&styp=vod&program_code=T2011-0306&program_id=PS-2012050980-01-000&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ation_code=00§ion_code=03#more (Accessed January. 22, 2021)
- [24] The manteau of "The great Gwanggaeto" [Internet]. KBS [cited 2012 April 28], Available From: 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_ame=vod&styp=vod&program_code=T2011-0306&program_id=PS-2012050979-01-000&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ation_code=00§ion_code=03 (Accessed January. 22, 2021)
- [25] The amor of "Six Flying Dragons" [Internet]. SBS [cited 2015 October 5], Available From: <https://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ld=22000144691&btn=free> (Accessed January. 22, 2021)
- [26] "Six Flying Dragons", Lee Seong-gye's armor, which period costume? It is not a reference [Internet]. Asiae [cited 2015 October 10], Available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5101013073825338> (Accessed January. 22, 2021)
- [27] Questionnaire method [Internet]. Namuwiki [cited 2020 July. 12], Available From: <https://namu.wiki/w/%EC%A7%88%EB%AC%B8%EC%A7%80%EB%B2%95> (Accessed September. 12, 2020)
- [28] B. Lee, "The influence of historical drama costume on Hanbok fashion", *Journal of Asian Ethno-Forms*, Vol.17, No.-, pp.5-20, 2016.
- [29] J. Im, "The research of remediation on the costumes design of Korean historical drama: Focused on the TV historical drama since 2000",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283, 2017.
- [30] Y. Lee, S. Kang, "The popular culture paradigm represented on the costume of historical dramas in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1, No.9, pp.131-147, 2011.
- [31] K. Geum,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pp.1-205, Youlhwadang, 1994.
- [32] E. H. Carr, What is history?, pp.1-258, Bumwoosa, 1996.
- [33] J. Hw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TV drama genre and flow experience on viewer's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pp.1-80, 2011.
- [34] H. Choi, "History dramas History dramas on TV and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history : Centering around 'Daejoyoung'",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pp.1-74, 2008.
- [35] S. Han,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historical drama in high school history education: The case of 'The Founder Wanggeon' produced by KB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60, 2008.
- [36] M. Lee, Historical distortion, the crossroads between two historical dramas [Internet]. Ohmynews [cited 2014 January. 3], Available From: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44172 (Accessed January. 12, 2021)
- [37] B. Choi, 'Jang Ok-jung' lives in distortion?..Material borrowing, adaptation is free [Internet]. Starnews [cited 2013 June. 4], Available From: <https://star.mt.co.kr/stview.php?no=2013060414410623059&type=1&outlink=1> (Accessed January. 12, 2021)
- [38] H. Lee, Hanbok, controversy over originator [Internet]. Newspim [cited 2020 November. 12], Available Fr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200114> (Accessed January. 12, 2021)
- [39] S. Kim, Hanbok originated from the Chinese Ming Dynasty? [Internet]. Yonhapnews [cited 2020 November. 5],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51600502> (Accessed January. 12, 2021)
- [40] S.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eaching-learning plan for Hanbok education in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32, No.2, pp.1-17, 2020.
DOI: <https://dx.doi.org/10.19031/jkheea.2020.06.32.2.1>
- [41] S. Yun, W. Jung, J. Le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curriculum for nurturing the talented workforce for Hanbok-busi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70, No.2, pp.154-167, 2020.
DOI: <https://doi.org/10.7233/jksc.2020.70.2.154>

김 장 현(Jang-Hy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예술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디자인 팩토리 대표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스포츠패션디자인, 디지털패션디자인

이 유 림(Yu-Rim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석사)
- 2019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메이크업, 바디페인팅, 화장품, 피부학